

- 본문 : 요한복음 20장 24~29절
- 제목 :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제자”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 본문 읽기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 ·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믿음이 한 번에 급속도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가 아주 느리고 더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눅 24:25). 한 순간에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거장이나 성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오랜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아주 느리게 진행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진보가 빠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믿음이 급속히 성장한 사람인가? 믿음의 진보가 아주 더딘 사람인가? 믿음의 진보가 더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신뢰할 만한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어 보라.

###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디두모’라고도 하는 제자 도마의 행적에 대해 요한복음만 세 가지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세 본문을 읽고 도마는 어떤 제자인지 관찰해 보라. 그리고 도마를 볼 때 ‘의심 많은 제자’로 보이든지, ‘질문이 많은 제자’로 보이든지 생각해 보라.
  - 1) 요한복음 11:16
  - 2) 요한복음 14:4~5
  - 3) 요한복음 20:24~25
2. 제자의 삶에서 “질문의 단계”를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14:5에서 도마가 한 말은 어떤 의도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심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직한 질문, 구도자적인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 도마의 경우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신앙고백을 드리며 내 신앙의 문제를 주님께 질문한 경험이 있는가? 당신은 질문을 품고만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인가?
3. 제자의 삶에서 “교제의 단계”를 생각해 볼 때, 도마는 25절에서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강한 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와 평강을 경험하고 28절에서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그 이후 도마에게 달라진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교제의 삶이 있을 때 모든 의심과 낙심과 허상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하신 말씀처럼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다. 온라인 예배, 개인 예배만으로는 그 영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 예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비가 내려도, 길이 멀어도, 주차장이 불편해도, 모든 환경이 열악해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와 같은 임재를 당신은 느끼고 있는가?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당신과 그리고 영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해 보라.

### · 말씀기도제목

1. 도마처럼 주님께 확인하고 질문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 ‘의심이 질문으로’, ‘질문이 믿음으로’ 바뀌는 “질문의 삶”을 경험하는 주바라기 되게 하옵소서!
2. 부활의 주님과 “교제의 삶”을 위해 “주를 예배하나이다!”라는 절박함으로 공동체예배를 회복할 때 의심과 낙심과 허상을 극복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